

## 1번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는 각각 일치, 불일치, 무관의 관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다)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공리에 따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타인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자신의 쾌락이 상승한다면 그 결정은 무가치하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어떤 결정의 가치 판단은 결정 주체의 이익 최대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가)와 (나)는 양극단의 관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지위는 운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주인으로 태어났다면, 자신이 '훌륭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노예의 행복을 위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훌륭한 주인' 밑에서 행복한 노예가 탄생하게 된다. 이로 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일치한다는 (가)의 주장이 도출된다.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임을 보여준다. (나)의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은 신경쓰지 않고 행동한다. 아내는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관념적인 것을 강요한다. 남편은 유교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뜻을 좇아 행복하게 사는 반면, 아내는 유교적 가치를 강요당하며 행복한 남편을 기다리며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를 보면, 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게 행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불일치하는 것이다.

## 2번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C국가군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B국가군이 더 이상적인 국가군이다.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를 보여준다. 개인의 행복으로 타인이 불행해지며, 타인인 아내는 이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아내는 자신의 행복이 남편과 동등해져야함을 주장한다. 이로 볼 때, 행복도의 평균이 높지 않더라도, 모두의 평등한 행복을 주장하기에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국민들의 행복도는 평균에 몰려있다는 뜻이 되므로 보다 더 평등한 것이다. C국가군은 27개 전체 나라의 행복도의 산술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 국가군 중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균 행복도가 낮지만 가장 평등한 C국가군이 제시문 (나)사회의 이상적 국가군이 된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B국가군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이다. 제시문 (다)는 모든 판단이 공리의 원리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인 국가는, 개인들 이익의 총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는 개인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보다는 모든 구성원 이익의 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즉, 특정 또는 일부의 개인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결정이라면 실행하는 것이 옳다. 즉, 구성원들의 이익의 편차가 크더라도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면 표준편차가 큰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B국가군은 27개 국가의 평균 표준편차를 넘는,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도의 산술평균 또한 27개 국가의 평균을 넘는다. 따라서 B국가군의 특징인 평균적으로 높은 행복도는 제시문 (다)의 공리의 원리와 잘 맞아떨어지며 (다)의 이상적인 국가군이 된다.